

연중 제17주일

기도서 399 면(A해)

제1독서: 1열왕 3, 5, 7-12

제2독서: 로마 8, 28-30

복음: 마태 13, 44-52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흥보리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0042·0043

□강론



지혜가 요구되는 세상

김윤섭 신부

성서사상에는 인간의 지혜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가를 밝히고 있지도 않다. 지혜는 부모와 스승들이 문화적 유산으로 받아서 다시 새 세대들에게 전해준 인류 체험의 축적이라 한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학교와 가정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다. 인간이 고된 삶과 명상을 통해서 성취하는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솔로몬의 경우처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은사로서 주는 지혜가 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처신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수나, 부귀나, 원수갚는 청을 아니하고 옳은 것을 가리어 내는 머리를 달라고 야훼 하느님께 청하였다.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후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열왕기상 3/9a)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어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솔로몬 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위기, 더욱더 잔인해지는 살인사건과 국제 테러사건, 대형화 되어가는 질도와 부정사건, 농민과 노동자의 아우성, 산더미 같이 더해만 가는 외채와 사채, 부정과 부패의 정당화, 선과 악의 가치관의 전도, 인간 상호간의 불신풍조,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한다면 삼복더위에 더욱 숨이 막힌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삶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세상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한다. 방방곡곡에서 갖는 정의 기도회, 주일 미사때 하는 신자들의 기도,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하느님의 의를 구하기 보다, 삶의 지혜를 구하기 보다는 우리의 부귀나, 장수나, 발전이나 원수갚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혹박이 분명치 않고 혼돈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맹렬한 이성으로 세사사를 관찰하고 이 땅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원평 주임신부)



제 2 회

교구 산간학교 개교

올해로 교구 산간학교가 두 번째 문을 연다. 사실 산간학교는 이미 본당 차원에서 해마다 실시해온 하기 수련회 내지는 캠핑이라는 모임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의 장이다.

청소년 지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교회안에서 자주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찌지도 못하고 말로만의 걱정으로 그쳤다. 일찌기 몇몇 교구에서는 전문교구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 교구에서도 학생활동에 관심있는 신배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교구 평협에서 거론하고, 작년부터는 교육국이 주관처가 되어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누구라도,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프로그램 빈곤을 크게 느끼고, 능력있는 지도자(자원 봉사자) 문제로 고심해 왔다. 그러다보니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생겨서’ 울상만 짓고 만 것이다.

청소년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오늘, 교회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교회안에서 건전하게 자랄 때, 교회는 3백년대를 향한 이 땅에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을 가늠하기가 매우 난감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교육의 책임자들에게서 뚜렷한 교육철학을 읽을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네자연 속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만나고, 순교자들의 일을 본받아 “이 땅에 빛”이 되고자 하는 교구 산간학교에 깊은 관심과 큰 사랑으로 격려를 아끼지 말자.

숲정이 산책



축! 도 문화재로 지정

노동관계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교회에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결과로, 가난과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절실한 요구와 주장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천명하여 인간과 사회의 참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반민주적 성격이 불행한 노동현실을 낳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바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제한, 박탈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 서명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1984년 7월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담당주교: 윤 공 희 대주교
회 장: 유 현 석

노동관계법 개정운동에 모두 참여합시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합니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간의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서명을 바랍니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작성, 배부한 서명용지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서명용지가 없으신 분들은 백지에 참여하는 뜻을 밝히고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보내 주십시오.

[1][0][0]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호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계속되는 근로자 탄압에 대한

우리의 결의

우리는 현 시국과 특히 지난 7월 5일, 이리 창인동 성당 구내에 있는 근로자의 집에 피한이 침입, 회사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J.O.C 회원에게 강간을 기도한 사건을 통탄하면서, 아래와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노동자의 인권 침해하는 현행 노동관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 가톨릭 노동청년회 탄압은 즉각 중지되고 부당 해고된 이리 태창섭유 근로자들은 복직되어야 한다.
3. 블랙리스트에 의한 계속되는 취업 거부와 부당 해고는 철폐되어야 한다.
4. 고문으로 조작된 소위 오송희 사건 관련자들은 즉각 석방되고 복직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함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84. 7. 23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일동

교리교사 하계 수련회를 마치고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에서는 하계학교 준비와 교사들의 알찬 지식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3박4일간에 걸쳐 34개 본당 199명의 교사들이 참가하여 한국교회사 강의, 하계학교 교재 강의 등 여러 내용으로 무사히 마치고 뒀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본당과 많은 교사들의 참가로 발전된 행사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비점도 있었으리라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각 본당 신부님, 사도회 임원님, 자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회장 이 병 연<프란치스코>

대 중 낙 원 맨 션 분 양

- 위치: 서원산동 용머리 고개 관심있는 교우 여러분!
- 평형: 24명 27명 29명 39명 분! 모델하우스를 찾아 주십시오.
- 용자: 600만원 (19년 상환) 아 주십시오.
- 난방: 연탄 및 가스보일러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강도높은 레미콘, 타설 (유) 대 중 산 업
- ☎ 2-4871, 6-2326 대표 유 종업 (스페노)

군산 태 광 약 국

☎ ②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영진 비디오 음악사

결혼·회갑·각종행사
촬영 전문
비디오 테이프 판매 교환
카세트테이프·레코드판매
전화 2-4094
채 석 자(글라라)
(전주백화점~한아름백화점 사이)

□ 교황님 말씀



여러분은 교회가 현대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문화의 한 창출자가 되도록 도울 소명을 받았읍니다. 문화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실로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의 완수로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일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특수한 도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과학 지식을 전달하며, 시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술을 창작하고, 인간에게 인간의 말을 써서 전하고, 사람들 사이의 의로운 관계를 세우는 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동시에 책임과 기회를, 아니 막대한 소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84. 5. 5. 문화인과의 만남에서)

□ 장애자들을 위한 집 개원

교구 장애자들(하나회) 지도신부 지 경환 신부님의 주선으로 전주 쌍용 아파트 다동 108호에 오갈데 없는 장애자들을 위한 임시숙소가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0일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과 여러 신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느님의 축복을 구하고 문을 연 이 집은 비록 조그마한 전세집이지만 외로운 장애자들에게 즐거운 나의 집이 될 것이다.

아울러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장애자들을 위한 이 집이 날로 번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수해자들을 도움시다

교구 사목국 사회복지부에서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수해자들을 위하여 수해의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이 고장 전라북도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남원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등지에 많은 수해자들을 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교구형 사목국 사회복지부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교님 수해지구 위로 방문

지난 7월 20일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께서는 이번 장마로 크게 피해를 입은 남원군과 임실군, 순창군을 방문하시어 수해자들을 격려했다. 주교님께서는 남원군청 사회복지과에 50만원씩을, 임실군 내 크게 수해를 입은 세 집에 10만원씩을, 이번 장마로 가옥과 전답을 모두 잃은 순창 동계공소 회장에게 3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 독일 마인즈교구 신자단 교구 방문

200주년을 기하여 전주교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독일 마인즈교구 신자단(남 1명, 여 8명)이 본 교구의 초청으로 8월 3일에서 10일까지 전주교구를 방문하게 된다. 마인즈 교구 신자단이 방문할 분당 및 기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8월 5일 10:30-중앙성당 미사 참석, 12:30-중앙성당 초청 오찬
14:00-화산성당, 상지원, 이리 동정성모회 방문
18:00-주현동 성당(초청 만찬)
- 8월 6일 15:30-해성, 성심학교, 전동성당 방문, 21:00-수류성당
- 8월 7일 10:00-고산성당(천호성지)
- 8월 8일 10:00-정읍성당, 18:00-덕진성당(초청 만찬)

요심이(573) 김병오

명동성당구내 비여인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천주교서울관구법원 출입자명단을 알려 달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종교적신판을 받은신자는 고해성자를 한것으로 인정하여 요청을 거절했다고

얼마전 최거석신부가 고해성사내용을 누설치양기위해 교도소에 갔었는데

직원 채용 공고

채용인원 : 남 0명
 자격 : 고졸이상 병역필(면제)자로서 25세이상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주산·부기 3급 이상) 각 1부
 접수마감 : 1984. 8. 2까지 본인 지참
 전형일시 및 장소 : 1984. 8. 4 10시 당선협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전주 파티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원갑 (☎ 4559)

눈! 눈을 보호합시다
 각국 수입안경대 다량확보
 <도수안경 전문>
 안경사 자격증 영소
제일 안경원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등앞
 구 성모병원 앞
 대표 김창록
 ☎ 0102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9206 · 5289

•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각종 술 일체
 • 커튼지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십!
금보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4) **순 정 이**

※ 환영! 독일 마인즈교구 신자단 교구 방문 (8월 3일~10일)

1. 중·고생 여름 산간학교: 28일 오전 11시~31일, 장소-완주군 고산면 읍내리(고산국교)
2. 군산지구 ME 팀장 회의: 30일 저녁 8시, 장소-월명동성당
3. 사제 평의회: 31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4. 제 2차 푸른군대 피정: 8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전주 노송동성당, 회비-1천원
준비물-도시락·미사도구, 장사-박 도식·하·안도니오 신부님
5. 제15차 어린이들의 모후 꾸리아: 8월 5일 오후 2시, 장소-이리 영등동성당(이리역→성모의원에서 하차)
□ 축하! 영명: 성 이나시오(31일)-성 태수·안 철문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협
보좌 신부 나춘섭
사도 회장 김인협

1. 각 신심단체: 8월 계획서 제출요
2. 군인신자 주소: 본당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3. 방지거 3회: 금일 오후 2시
4. 사도회: 8월 5일 공식미사 후
5. 첫영성체: 영세교리-화~토요일 오전 9시~12시
6. 돼지저금통: 잘 크고 있는지요?
7. 벽돌봉헌: 26,182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991,705원 교무금: 838,0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번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⑥7032번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1. 신축기금 수입합시다: 50만원-서승배·최남수·전복남, 40만원-최기중, 30만원-강희자, 황인회, 19만 2천원-임정옥, 20만원-김순일·최양순·탁복희·이윤·황영자, 16만원-박광순, 14만4천원-유정자, 15만원-박은주·장영호·고석환·박정숙, 12만원-김순자·이정자·박정남, 소계: 4,956,000원, 누계: 85,836,000원
2.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오전 9시
3. 학생회 하계수련회: 30일~8월 3일까지 (부안 중계)
4. 감사: 주일학교 간식 제공하신 분들께, 참석-183명
5. 5개공소 여름 성경학교: 30일~8월 4일까지
각 공소의 회장님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신학생을 양성합시다: 본당 활동액-2,144,000원
현재 모금 총액-1,461,012원, 부족액-682,988원
7. 공소 순회미사: 8월 4일 저녁 8시, 신교리 공소
8. 아파트 소식: ①요셉회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주일 저녁미사-오늘부터 매주(일) 저녁 8시에 공식미사 외에 또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5,300원 아파트: 104,070원
교무금: 456,000원 아파트: 125,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동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의 모임: 진복회 공식 미사후
2. 주일학교 방학: 8월중엔 3시 미사만 있음
3. 본당 캠프장 설치: 진안 부귀면 두남리 부곡 예비군 훈련장, 차편-오전 7시25분·오후 3시(학생·일반) 분·6시15분, 차비-두남리까지 540원 다리에서 하차 성인일반-7월 30일~8월 3일까지, 개인 및 가족 또는 단체별 자유피정, 친목대회
청년-8월 4일~5일 수련대회 ※ 위 기간중 야영장에서 매일 미사, 본당-저녁미사 봉헌(월요일 제외)
4. 8월중 월례회의: 성심부녀회-1일, 가리파스 자모회-2일, 부곡 야영장에서 각각 가집니다
5. 진복회에서 후문과 화장실을 새로 개축했습니다
6. 본당 금주 대청소: 8월 4일 오후 3시(학생·일반)
7. 원장 수녀님 입원: 캐슈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8. 사도회 상임위원회: 8월 4일 3시
- 지난주 봉헌금: 482,160원 교무금: 324,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설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남관
3. 첫차례 7: 8월 4일 저녁미사
4. 부녀회 단합대회: 8월 7일 오전 9시까지 성당 집결
5. 주일학교 방학: 9월 첫주일 개학(미사-오후 3시)
6. 자모회: 8월 5일 공식 미사후

7. 축하! 첫영성체: 37명, 어린이 영세 12명 축하합니다
8. 금주 성당청소: 월-황금의 공전, 토-죄인의 의탁
9. 차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10. 대학생회 임시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11.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천 건 ②조성호
12.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최재준 ②장영자
- 지난주 봉헌금: 156,990원 교무금: 535,660원

(서학동)

신부 ⑥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⑥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사도회 월례회-8월 2일 저녁 7시30분
사도회-8월 7일 오전 10시30분
2. 감사드립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에 수고해 주신 주일학교 교사와 자모님께
3. 이번주일부터 주일학교 방학에 들어갑니다
4. 감사합니다: 손숙자-제매 꽃대 (1만원)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정환 ②한상철
- 지난주 봉헌금: 324,445원 교무금: 514,000원

(숲정이)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갑

1.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여름성경학교: 부녀회·성모회·레지오 작Pr. 회원들 기타 협조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사도회 전체회의: 8월 15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임원 및 위원·구역 정부회장·신심단체 대표
4.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기도, 독서-선종현·김선숙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기도, 독서-김남근·이정숙
- 지난주 봉헌금: 336,395원 교무금: 472,3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⑥3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30~8월 4일 9시~11시30분
5. 중·고생 산간학교: 28일~31일 교산
6. 성가정회: 8월 1일 12시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양자, 독서-①신일균 ②장금배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최중만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802,120원 교무금: 379,500원
특별헌금(익명): 200,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종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8월 영세예정자 특별교리
일시-31~8월 4일 저녁 8시~9시30분
장소-유치원
참가대상-①영세 신청자 ②대부·대모 ③사도회임원
전원 ④각단체장 ⑤각Pr. 단장
2. 지성인 예비자교리: 화요일 저녁 8시
3. 유아세례: 오늘 10시
4. 감사합니다: 성당 의자 책틀-장모니카(20만원)
- 지난주 봉헌금: 331,640원 교무금: 543,000원
감사헌금: 김 가타리나-5,000원